



영국노총 의사결정 시스템: 2013년 정기 대의원대회 참관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및 조직행동))

■ 머리말

매년 9월, 영국 유일의 노동조합총연맹인 영국노총(TUC)은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주요 내용이 공영방송인 BBC를 통해 생중계 되고, 정당의 당수나 영국은행 총재 등 영국 정치·경제의 주요 지도자들이 연사로 참석하기도 하는 이 대회는 명실상부한 영국노총의 최고 의결기구 회의이다. 다른 노동조합들의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이 대회의 임무 역시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위원회(General Council)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받아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향후 1년 동안의 TUC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TUC의 운영체제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몇몇 문헌에서 다루었다.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2009)는 각국 노동단체 소개란에서 영국 노사관계 개요와 함께 영국노총의 역사, 조직 및 운영체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고, 안정화(2003)는 영국노총의 가맹노조와 조합원의 구성, 조직과 의사결정의 구조, 사무총국 구조, 재정 및 조합비, 정책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최근 자료로는 권병희(2011)가 있는데, 2011년 영국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 동향을 '의제' 중심으로 다뤘다. 이들 문헌이 영국노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직 및 운영체제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반면, 이 글은 TUC 대의원대회에서 실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좀더 상세히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안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논의안건으로 채택이 되는지, 채택된 안건들이 대의원대회에서 토론되고 영국노총 사업내용

으로 결정되는 방식은 어떠한지, 안전토론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의원대회는 실제 어떻게 조직되고 진행되는지 등을 서술하면서 한국 노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2013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영국 남부 본머스(Bournemouth)에서 진행된 대의원대회를 참관했고, 가맹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들 및 TUC 관계자들을 인터뷰 했다.

■ 개요

1868년에 설립된 영국노총(TUC)은 영국 유일 노총이다. 2013년 현재 54개 노조, 조합원 585만 5,271명을 포괄하고 있다. 가맹노조 수와 조합원 수는 1980년(109개, 121만7천 명)과 비교할 때 각각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조합원 수의 감소는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조 수의 감소는 이뿐 아니라 노조 간 통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1979년 보수당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이 강성이었던 탄광 폐쇄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 저항 무력화는 물론 공공부문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의 조치로 약화되던 노동조합들이 조합원 수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조합 재정상태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통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8년부터 1994년까지 16년 동안 TUC 가맹 노동조합 가운데 143건의 통합사례가 발견됐고(채준호 2008: 22), 이후에도 노동조합 통합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유나이트(Unite), 유니손(UNISON), 지엠비(GMB) 모두 기존 노동조합들의 통합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07년 출범한 유나이트(Unite)는 아미쿠스(Amicus제조업, 기계공업, 에너지, 건설 등)와 운수일반 노동조합(TGWU)의 합병으로 출범한 노조이다. 아미쿠스 역시 유나이트로의 통합 전에 엔지니어들의 노동조합인 AEEU, 재정 및 금융서비스 노동조합(MSF and Unifi), 인쇄업 노동조합인 GPWU가 합쳐진 노동조합이었다. 이처럼 영국 노동조합들의 통합 움직임은 아주 활발하고, 앞으로 영국 노동운동은 소수의 ‘슈퍼 노동조합’이 주도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들 3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323만 명)는 전체 TUC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다(55%). 그렇다고 해서 대의원 규모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의원은 가맹노조 조합원 5천 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1명(규약에 따라 2명을 보장

〈표 1〉 TUC 주요 가맹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수

노조	조합원 수	대의원 수
유나이티트(UNITE)	1,319,413	70
유니슨(UNISON)	1,301,500	63
지엠비(GMB)	613,384	54
NUT (전국교원노조)	326,930	40
USDAW (소매유통노조)	425,652	34
NASUWT (교원노조)	294,172	31
PCS (공공서비스노조)	262,819	22
(중간 생략)		
AFA-CWA (비행승무원노조)	500	1
NACODS (전국관광노동자노조)	226	1
전체 (54개 노조)	5,855,271	541

받기도 함), 5만 명 미만은 1만 명당 1명, 7만 5천 명 미만은 6명, 1만 명 미만은 7명 등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진다. 물론 이때 조합원은 TUC에 조합비를 납부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올해 대의원은 모두 541명(남성 316명, 여성 225명)이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빅3 노조의 대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전체의 34.6%이다.

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다. 대회 운영규정에는 대회 개최 시간과 오전 및 오후 토론시간, 종료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다(표 2 참조). 올해 대회는 일요일인 9월 8일 오후 4시에 개최되어 수요일 오후까지 진행되었다.

■ 안건 제출 등 대의원대회 일정

매년 대회에는 중앙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최대 200페이지까지 작성되는 방대한 자료로 대회 전 지난 12개월 동안 TUC가 했던 사업, 즉 경제적 이슈, 평등, 조직화, 공공서비스, 고용권, 그리고 국제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보고서의 모든 문단들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표 2〉 대의원대회 일정

항목	일시	내용	결과
안건 제출	대회 8주 전까지 (올해의 경우, 7월 15일)	- 노조는 최대 2개까지의 안건 제출 - 조합원 100만 명 넘는 노조(UNITE와 UNISON이 해당)는 3개까지 - 사전에 개최되는 특정노동자그룹별 대의원대회 명의로도 안건 제출 가능 - 안건은 250자 초과 안 됨	예비안건 80개 취합
취합 안건 배포	대회 6주 전까지	- 취합한 안건들을 중앙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5가지 TUC 핵심 사업 분류에 따라 정리됨	예비아젠다라는 제목으로 정리, 인쇄돼 노조에 배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람 가능)
수정안 제출	대회 4주 전까지 (8월 12일)	- 노조별 2개까지 - 조합원 100만 명 초과 노조 3개까지 - 수정안은 50자 초과 안 됨	80개 예비안건에 대한 46개 수정안 취합
최종안 배포		- 취합된 모든 안건과 수정안들이 하나의 문서로 인쇄되어 대의원들에게 배포됨 - 중앙위원회 보고서도 함께 배포됨	최종아젠다 대의원에 배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회람 가능)
통합안 심의	대회 전까지 (올해의 경우 9월 4일까지 심의 종료)	- 비슷한 내용의 안건과 수정안을 제출한 노조들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하나의 통합안으로 정리 - 새로운 단어 추가 안 됨	일반목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 42개와 이에 대한 수정안들이 18개의 통합안으로 정리됨
대회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나흘 (중앙위 결정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 오후에 시작함)	- 8일(일) 오후 4시~7시 - 9일(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10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11일(수) 오전 9시 30분~12시 45분 (폐회 일에는 오후 4시 전에 끝내야 함)	비고: 점심시간(매일 12시45분~오후 2시 15분)과 회의 종료 후에 다양한 부가 회의들 조직되어 있음

받게 된다. 대의원들은 보고된 활동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신 대의원대회 대부분의 시간은 각 노조들에서 제기한 안건들을 논의 하는데 할애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된 최종 56개의 안건과 6개 긴급안건이 상정되었다.

각 노조들은 2개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는 경우(올해는 UNITE와 UNISON 2개 노조 해당)에는 추가로 1개의 안건을 더 발의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노동자 그룹의 중요성과 평등에 관한 TUC 역할을 감안하여 TUC 내 특정 노동자 그룹 대의원대회(여성, 흑인,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등)에서는 소속 노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들 대의원대회에서 TUC 대대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은 대회가 열리기 8주 전(올해의 경우 7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안건 내용은 25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전 TUC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 안건이라면 배제된다. 이렇게 취합된 안건들은 예비안건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뒤 가맹 노조로 보내져 회람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노조들은 대회 4주 전(8월 12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정안 제출 개수 역시 2개(100만 명 넘는 노조는 3개까지)로 제한되고 글자 수는 50자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취합된 안건과 수정안들은 최종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모든 대의원들에게 배부된다. 다른 가맹노조들의 경우와 달리 TUC 대의원대회에서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은 비슷한 내용의 안건들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유사한 주제의 토론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대회 운영을 주관하는 TUC 일반목적위원회는 비슷한 내용의 안건(혹은 수정안)을 제출한 노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노조들과 우편이나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뒤 하나의 통합안으로 작성되어 별도의 책자로 대의원들에게 배포된다.

이처럼 안건들이 대회 개최 8주 전부터 완결된 문장 형태로 제출되고, 조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회 당일 수정안이 제시되고 문구조정을 거치는 경우는 긴급안건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안건

이번 TUC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당초 각 노조 및 특정 노동자 그룹 대의원대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모두 80개였는데, 이 가운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건을 묶는 통합 작업을 거쳐 80개 안건 가운데 42개와 이에 대한 수정안들이 18개의 통합안으로 정리가 되었다. 안건이 통합안으로 묶여진 경우, 해당 노조들 간 토론을 통해 어떤 노조가 발의자, 제청자, 그리고 지지자가 될지를 정하고 대회 당일 그 합의에 따라 안건 토론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당초 제기된 5개의 안건과 이에 대한 수정안 3개가 합쳐서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 및 고용권리’에 관한 안에는 11개의 노조가 간여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발의, 제청, 지지발언까지 11명의 대의원이 단상에 올라 이 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자료집을 보면 대의원대회에서 채택, 논의되는 안건이 중앙위원회 보고서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중앙위원회 보고서는 총 7개의 챗터와 부록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괄 및 행정 파트를 제외한 5개 핵심 챗터는 TUC가 최대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의 큰 줄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5개 챗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 ① 일자리, 성장, 및 새로운 경제 : 긴축반대 캠페인, 대안적 경제전략, 세금 및 긴축정책, 금융정책, 에너지 정책, EU 가입여부 국민투표 등
- ② 공정 임금 및 생활 임금 : 공정 임금, 임금 인상, 노동권에 대한 공격, 연금, 전국최저임금 등
- ③ 좋은 서비스와 복지 : 긴축정책에 맞서 지방정부 및 국가의료서비스(NHS) 보호, 공교육 수호, 화재 및 구조서비스 감축,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우체국(Royal Mail) 민영화, 철도 민영화, 복지국가 및 장애인권 보호 등
- ④ 일자리에서의 존중 및 발언력 : 개별적 · 집단적 노동권, 임시직 계약 및 고용법 변화, 긴축정책 대응 및 노동조합 권리 증진, 고용차별, 여성 및 고용권, 차별적 노동환경, 정신건강 등
- ⑤ 강한 노조 : 노동조합 대표들의 활동권, 노조 학습기금, 지역 단위 캠페인 지원, 방글라데시(라나 플라자 빌딩 화재 사망 사건에 따른) 협약,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그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 국제적 성소수자 권리 등

이 외에 긴급안건도 상정될 수 있다. 일반목적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다루고 있는 이슈가 안건과 수정안 제출 마감시기를 지나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대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하게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건을 제출하려는 발의자와 제청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건으로 접수되면 GPC는 대회장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긴급안건의 내용을 바로 배포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6개의 긴급안건이 상정됐는데, 주 내용은 런던 지하철 파업을 금지하려는 런던시(보수당 집권)에 대한 항의, 잉글랜드 NHS 앰블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병가수당 삭감 항의, 북해 헬기 추락 사망사건에 대한 애도, 콜롬비아 노동운동 탄압 항의 캠페인 등이었다.

■ 안건발의 자격 및 과정

이렇게 안건이 대회에 상정되면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론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발언자들이 ‘개인’이 아닌 ‘노조’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이다. 특정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해당 노조의 승인을 얻어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고, 대회장에서 발언을 할 때에도 특정 노조를 대표하여 발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안건 제안자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대의원이 같은 안건에 대해 두 번 이상 발언을 할 수는 없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시 발언자의 최대 수는 제한이 없고 상황에 따라 대회 의장이 결정을 한다. 물론 안건 논의에 앞서 어느 노조에서 누가 찬성 혹은 반대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발언 순서 및 발언자 수에 대한 사전조율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대회장에서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의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배분을 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이를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소란을 야기하는 대의원에게는 퇴장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대개 안건제안자의 발언이 끝난 이후 어느 노조에서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해주었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발언을 하기 위해 맨 앞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시간 제약도 있다. 안건 제안자는 5분, 그 외 제청, 지지, 반대 발언을 하는 대의원은 3분 안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모든 발언자는 단상에 올라가 전체 대의원을 바라보고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발언시작과 함께 이들이 서 있는 단상에 초록색 불이 켜진다. 발언 종료시간 1분을 남기면서부터 이는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빨간색으로 바뀌고 의장은 발언을 즉시 마칠 것을 종용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 없어 제한시간 안에 발언을 마칠 수 없었던 한 대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의원들이 시간을 엄수했다.

■ 의결

대부분의 의결은 대의원들의 거수로 진행된다. 대개의 경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는데, 반

대 의견이 있을 때 찬반의 차이가 눈에 확인될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는 의장이 “분명히 가결되었다”라며 안건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거수로 확인된 찬반 의사가 비슷할 경우, 혹은 특정 노조에서 요구하고 다른 노조들도 찬성을 할 경우에 의장은 카드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카드투표가 결정되면 해당 노조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노조의 카드투표지를 통해 찬반 의사를 전할 수 있다. TUC 대의원대회에의 카드투표지에는 해당 노조의 명칭과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가 인쇄돼 있다. 즉 1개의 노조는 1개의 투표지를 갖는다.

이는 필자가 참석했던 2013년 6월 유니손 전국대의원대회의 카드투표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유니손의 경우, 카드투표를 진행하는 사유는 TUC와 같다. 그러나 유니손 카드투표용지에는 해당 지부 전체 조합원의 수가 미리 인쇄돼 있고 찬성과 반대를 표기하는 빈 공간이 있다. 카드투표가 확정된 안건에 대해 지부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감안, 조합원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를 각각 나눠서 쓴 뒤에 제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부 조합원 수가 1,500명인 경우, 카드투표 용지에는 찬성 1,000명, 반대 500명 혹은 찬성 1,500명 등과 같이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찬반의 수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TUC 카드투표 방식은 다르다. 하나의 노조는 조합원 수의 크기나 조합원 내 이견그룹의 분포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사, 즉 찬성 혹은 반대만 개진할 수 있다. 1노조 1투표제이다. TUC 한 관계자는 “TUC의 가맹단위는 ‘노조’이고, 노조 내에서의 이견은 해당 노조에서 토론을 거쳐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 내 찬반을 TUC 대대에서 모두 표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TUC 대의원대회에서 카드투표를 진행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거대 노조들의 찬반 여부가 안건 가결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기타 및 대회장 주변

이와 함께 중앙위원 선출도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위원은 조합원 규모 및 대변하는 조합원의 특성(여성, 흑인, 장애인, 성소수자, 혹은 연령(27세 미만))에 따라 10개의 부류로 나뉜다. A부문은 조합원 20만 명 이상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대표자들 가운데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29명, B부문은 조합원 3만~20만 명 노동조합 대표들로 총 13명, C부문은 3만 명 미만

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 대표자들로 총 7명, D부분은 20만 명 미만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 출신 여성으로 총 4명, E부분은 20만 명 미만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에서 흑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자 1명, F부분은 조합원 20만 명 미만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에서 흑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자 1명, G부분은 흑인 여성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자 1명, H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대표자 1명, I부분은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대표자 1명, J부분은 27세 미만 청년층 조합원 중 대표자 1명 등으로 총 59명이다. C와 D부분을 제외한 부문 대표 중앙위원들은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이 되었고, 출마자가 해당 부문 중앙위원보다 많았던 C와 D부분은 대회 중간 이 부문(3만 명 미만 노조들 및 조합원 20만 명 미만 노조들) 대의원들의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대회를 주관하는 GPC 위원들 역시 이번 대회 참석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5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차기 대의원대회(Congress, 2014)를 준비하게 된다.

대회장 주변에도 불거리는 풍성했다. 첫째는 부가 회의(fringe meetings)였다. 이 회의들은 대회 일정 동안 점심시간과 하루의 토론을 마친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다. 한 번에 적게는 4개, 많게는 13개의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회의들은 TUC 중앙 혹은 각 가맹노조들이 주관한다. 주제도 다양하다. 몇 가지 인상적인 회의주제를 살펴보면, ‘위기 이후 재구성: 단체교섭을 위한 선언’, ‘청년층 일자리로의 이행’, ‘보편적 복지 및 복지국가’, ‘남성 지배적 산업에서의 여성’, ‘재정지출 삭감 및 민영화 분쇄 행동’, ‘인종, 인종주의, 그리고 긴축정책 - 노동자,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 방어’, ‘공정임금’, ‘생활임금’, ‘보건 사회복지를 위한 미래’, ‘책임 있는 자본주의’, ‘노동조합 및 노동당’,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2015년 이후 - 무엇이 대안인가’,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 관계 재설정’, ‘민영화의 실질적 비용’ 등이다. 이들 회의는 대회장에 마련된 소규모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되는데 관심이 높은 주제일 경우, 예를 들어 필자가 참석했던 ‘위기 이후 재구성: 단체교섭을 위한 선언’을 주제로 한 회의에는 주최 측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0여 명가량이 몰려 끝까지 서서 경청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정도였다. 또한 부가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대가 점심시간이거나 하루 토론을 마친 시간임을 감안하여 주최 측은 샌드위치와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두었다.

둘째는 전시공간이었다. 대회장 1층의 한 부분에는 총 82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각 노조나 노동당, 노동연구조직, 인권조직, 노조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법률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자신

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참가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부스를 설치한 조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특정 캠페인에 대한 서명을 받기도 하고, 해당 조직에의 가입원서를 받기도 했다.

셋째는 대회장 밖이었다. TUC 대회장은 등록된 대의원과 TUC초청 외부자, 사전에 참가신청을 한 참관자, 기자 등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회의장 있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TUC로부터 미리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했다. 따라서 TUC의 가장 큰 행사장에서 참석 대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회장 ‘밖’에서 신문 판매, 리플릿 배포, 약식 집회 등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집의 내용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다. 처음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안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취합되고 조율되는지, 대의원들의 발언시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 자료집 부록에 지난 1년 동안 개최된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빈도와 위원들의 참석여부까지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대의원대회 개최 이후 올 대회까지 중앙위원회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7차례가 개최되었는데, 대개는 5~7차례를 참석하였지만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 자료집에는 모든 회의불참 이유를 다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대개는 다른 TUC 활동이 있었거나 다른 노조 활동 혹은 병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회 역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인 10차례 개최되었는데 위원 대부분이 5차례 이상 참석했다. 이와 함께 자료집에서는 물론 대의원들의 출입구에는 자리배치도가 있어서 노조별로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울 경우 어느 노조에서 몇 명이나 자리를 비웠는지 역시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영국노총 의사결정구조를 대의원대회 운영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험과 견줄 때, 영국노총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UC의 가

맹단위가 개별 노동자나 지역단위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안전 제출 단위도 노조이고, 대의원대회에서 발언자들의 포지션도 대의원 개인이 아닌 소속 노조를 대표하는 대의원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전에 대한 카드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카드는 대의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단위로 1표씩 부여된다. 둘째, 사전 준비의 치밀함이다. 대의원대회 8주 전까지 해당 노조들은 안전을 제출해야 하고 TUC는 이를 묶어 개별 노조에 회람토록 한다. 다른 노조들이 제기한 안전들을 회람한 뒤 의견을 첨삭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들은 대회 4주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취합된 안전들의 유사성을 살펴 몇몇 안전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묶는 작업도 사전에 진행되고 이 역시 대회 전에 별도의 자료집으로 배포된다. 셋째, 회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공유함으로써 회의 진행을 둘러싼 불만과 다툼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발언자 수,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사전 고지되고 자료집에도 세세하게 명시함으로써 발언권이 특정 노조, 특정 대의원이 아닌 다수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KLI**

참고문헌

- 권병희(2011), 「영국노총의 2011년 정기 대의원대회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2009), 「국제노동단체소개 : 영국 - TUC」, <http://www.koilaf.org/board.do?menuNo=46&boardConfigNo=12&action=view&boardNo=15851>
- 안정화(2003), 『각국 노동조합 전국 중앙조직의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채준호(2008), 『영국의 노동당과 노동조합』, 연구총서 2008-1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TUC(2011), TUC Rules and Standing Orders(amended by the 2010 Congress), http://www.tuc.org.uk/the_tuc/tuc-19495-f0.pdf
- TUC(2013), A Beginner's Guide to the Annual Trades Union Congress.
- TUC(2013), Congress Guide 2013.
- TUC(2013), Congress 2013 Final Agenda.
- TUC(2013), Congress 2013 GPC Report and Composite Motions and General Council Statements.
- TUC(2013), Congress 2013 General Council Report.
- TUC 홈페이지 'Congress 2013'에서 정기 대의원대회 관련 배포된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http://www.tuc.org.uk/the_tuc/index.cfm?mins=452&minors=62&majorsubjectID=19).